

男おいどん

사나이 오이동

出典: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

출전:프리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Wikipedia)>

『男おいどん』（おとこおいどん）は、4畳半の下宿である「下宿館」における主人公、大山昇太（おおやま のぼった）をはじめとする若者たちの青春群像を描いた松本零士の漫画作品である。週刊少年マガジン（講談社）誌上で1971年5月9日号から1973年8月5日号まで連載された。

<사나이 오이동>은 4조반 하숙인 <하숙관>에 사는 주인공 “오오야마 노봇타”를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의 청춘군상을 그린 “마쓰모토 레이지”의 만화작품이다. 주간 소년매거진(코우단샤) 지상에 1971년 5월 9일 호부터 1973년 8월 5일호까지 연재되었다.

概要

개요

老朽下宿で四畳半の部屋を借りて極貧生活を送る大山昇太を主人公とし、彼を取り巻く人々の生活を描いている。彼の部屋の押し入れにはパンツ（サルマタ）が山積みとなっており、碌に洗濯もしないため、雨が降ればサルマタケと称する茸が生える程の状況で、あまりの貧困ゆえに、サルマタケも食用にされる。

노후하숙에 사조반의 방을 빌려 극빈생활을 보내고 있는 “오오야마 노봇타”를 주인공으로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그의 방의 벽장에는 팬티(사루마타:사각팬티)가 산처럼 쌓여있고 변변히 세탁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면 “사루마타케”라 불리는 버섯이 생겨날 정도의 상황으로 극도의 빈곤 덕에 “사루마타케”를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世界各国で出版されている同作者の主力となっているSF作品とは異なり、日本の集合住宅である4畳半部屋の住人を扱った『大四畳半シリーズ』の1作品である。この作品は、日本国内の松本零士ファンを中心として根強い人気があり、作品に描かれている人々の情や主人公の意気込みについては、実に味わいが深いといわれる。

세계각국에 출판되어 “마쓰모토 레이지”의 주력이 되어 버린 SF작품과는 달리, 일본의 집합주택인 4조반하숙의 하숙인을 다룬 <대사조반 시리즈> 중의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일본 국내의 “마쓰모토 레이지” 팬을 중심으로 뿌리깊은 인기가 있고, 작품에 묘사된 사람들의 정과 주인공의 기개에 대해 참으로 깊은 맛이 있다고 일컬어 진다.

また、この作品は、作者である松本零士本人の回想録であるとみなされる場合も多く、作者の人間観を強く現わしている作品と考えられることもある。作者自身も同作品のキャラク

ターには事のほか思い入れが強いらしく、よく似た・もしくはほぼ同一キャラクターが他作品にもしばしば登場しており、その貧しいながらも誠実で、大抵は空腹ながらもエネルギーが豊富で、しばしばボロゆえの乱暴さとバイタリティーが各々の作品に独特の雰囲気を与えている。

또, 이 작품은 저자인 “마쓰모토 레이지” 본인의 회상록인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저자의 인간관을 강하게 나타내는 작품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한다. 저자 자신도 본 작품의 캐릭터에 대한 애착이 강해, 속 빼담은 혹은 거의 같은 캐릭터가 다른 작품에도 잠시 등장하기도 한다. 그 가난함 속에서도 성실하고 거의 매일 같이 굶으면서도 힘이 넘치는, 쉽게 흥분해 버리는 난폭함과 넘치는 생명력은 각각의 에피소드에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80年代に一度実写版映画化の話があったが、主演の予定の配役が「郷ひろみ」だったため、原作者の松本氏が「郷さんに恨みはないが」と前置きした上で、「昇太はいつも郷ひろみのような二枚目を『ちきしょーちきしょー』とくやしがっていたのにそれじゃあ、あまりに昇太が可愛そうだ」と納得しなかったため中止となったが、同じく『大四畳半シリーズ』の1作品である『元祖大四畳半大物語』が1980年に実写映画化されている。

80년대에 한번 실사판 영화제작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주인공으로 예정된 배우가 “고우 히로미”였기 때문에 원작자인 “마쓰모토”씨가 “고우상에게 원한은 없지만”이라는 전제하에 “노봇타는 항상 고우 히로미 같은 미남자를 쓰별, 쓰별이라고 분해 하고 있는데, 고우 히로미씨가 노봇타역을 맡으면 노봇타가 불쌍하다”라고 납득하지 않아 중지되었다. 하지만 같은 <대사조반 시리즈> 중 한 작품인 <원조대사조반대이야기>가 1980년 실사 영화화 되었다.

[編集] あらすじ

<편집> 줄거리

時は1970年代、場所は日本の東京・文京区・本郷。「無芸大食人畜無害」を信条とし、貧しくも概ね正直に浪人生活を送り続けるチビでガニマタ・ド近眼・ブ男・サルマタ怪人とまてに呼ばれる大山昇太の周囲には、何故か様々な女性があらわれては通り過ぎてゆく。

때는 1970년대, 장소는 일본의 도쿄, 분쿄구 혼고 <재주 없고 많이 먹고 사람과 동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를 신조로 가난하지만 거의 정직한 백수 생활을 보내고 있는 키 작고 다리 짧은, 근시, 놌팽이, 사각뿔쓰의 괴인이라고 까지 불리우는 “오오야마 노봇타”의 주위에는 어째서 인지 다양한 여성들이 나타나고 사라져 간다.

[編集] 主な登場人物

<편집> 주요 등장인물

大山昇太 (おおやま のぼった) 오오야마 노봇타

自分についておいどんという一人称をつかう主人公。下宿館の2階の西向き4畳半の部屋に住む。はっきりとした年齢は分からないが、物語中では、16歳くらいから徐々に22歳くらいまで進行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故郷は九州。中学校を卒業した後に東京に移り、アルバイトをしながら高等学校の定時制の課程の夜間部(夜間高等学校)に通っていたが、勤務先の工場をクビになった際、中途退学してしまう。それでもめげずに学校に戻ろうとしているが、状況は日々の生活を送ることで精一杯のようだ。ストーリーの最後にほぼ必ず「トリよ、おいどんは負けんのど!」と言う。それにたいしてトリさんは「なーにか」と返事をする。トリにしかな心情を吐露することが出来ないおいどんの孤独感を強調しストーリーを閉める。

자신을 칭할 때 오이동이라는 일인칭을 사용하는 주인공(큐우슈우 사투리). 하숙관의 2층 서향의 4조반 방에 산다. 정확한 나이는 알지 못하지만 이야기 중에는 16세 정도로부터 22세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고향은 큐우슈우.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상경,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등학교 정시제 과정의 야간부(야간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직장인 공장에서 쫓린 후 중도 퇴학해 버린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학교에 돌아가려 하지만 상황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도 빠듯하다. 각 에피소드의 마지막에는 대부분 <토리, 나는 지지 않아!>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대해 토리는 <뭘?>이라고 대답하며 토리 이외에는 심정을 토로할 수 없는 오이동의 고독감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맺는다.

下宿館には風呂があるが殆ど入浴せぬゆえか、自身がインキンであるために白癬菌感染症(→水虫)の治療薬に詳しく、自他共に認めるインキンのオーソリティであるが、それが生活の足しになった事は無い。夏場は蒸れてインキンが悪化するため、下宿内ではランニングシャツとサルマタだけでうろつく事があり、新しく入った若い女性下宿人には些か不評だが、暫らく住んでいる女性下宿人にはほとんど気にされていない(むしろ同情される)という「人畜無害」ぶりである。なぜか、多くの美しい女性と接点がある艶福家?である。

하숙관에는 욕실이 있지만 위험하다고 입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백선(피부병)이 있기 때문에 백선균감염증(→무좀)의 치료약에 정통해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백선의 권위자 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생활에 도움이 된 적은 없다. 여름에는 습해서 백선이 악화되기 때문에 하숙 안에서는 런닝셔츠와 사각팬티만 입고 서성거리는 경우가 있어 새로 입주한 젊은 여성하숙인에게 잔소리를 듣지만 어느 정도 지난 여성하숙인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차라리 동정을 받는다.)라는 <인간과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를 실천하고 있다. 어째서 인지 아리따운 여성들과 많은 접점이 있는 염복가이기도 하다.

下宿館のバーサン 하숙관의 할머니

下宿館の所有者であり、管理人でもある。箒や包丁を振り回したりと、かなりパワフルな老婆であるが、人情家でもある。死別した夫がいる(風邪をこじらせたらしい)。大山昇太の家賃の支払いは滞っているようであるが、追い出そうとはしないで、逆に空腹や風邪で倒

れた大山に玉子酒や食べ物を与えたりもしている。

人の頭程の凄まじい大きさのステーキを焼いたこともある。

하숙관의 소유자이자 관리인이다. 빗자루와 식칼을 휘두르는 등의 힘이 넘치는 노파이지만 후덕한 인정가이기도 하다. 사별한 남편이 있다(감기가 도져서). “오오야마 노봇타”의 집세가 밀리는 경우가 많지만 쫓아 내지 않는다. 반대로 굶거나 감기로 쓰러진 “오오야마”에게 타마고사케(계란, 일본주, 설탕을 섞은 일본식 음료 우리 식으로 하면 소주에 고추가루 탄거라고 보면 될까?)와 음식을 주기도 한다.

사람 머리만한 엄청난 크기의 스테이크를 굽는 경우가 있다.

紅樂園のオヤジ 코우라쿠엔의 아저씨

妻と中華料理店「紅樂園」を経営している。こどもはいない様子。ちなみに大山昇太の好物は、この店のメニューにもあるラーメンライスである。人情に篤く、しばしば大山昇太にはアルバイトを提供したりもするが、ツケだけは受け付けられないようだ。ただし感動したり同情した場合には、オゴリと称してラーメンにライスや卵を付けるなどしている。同店の経営状況は「繁盛せず、しかして潰れもせず」だが、近所の労働者（ブルーカラー）層にも人気があるようだ。

부인과 중화요리점 <코우라쿠엔>을 경영하고 있다. 자식 없는 상태. 덧붙여 “오오야마 노봇타”가 좋아하는 가게의 메뉴는 라멘 라이스(라면과 밥)이다. 인정이 있어 때때로 “오오야마 노봇타”에게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외상은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 다만 감동하거나 동정하는 경우에는 “한턱”이라고 칭하는 라멘에 밥과 계란을 넣어 주기도 한다. 가게의 경영상황은 변창하지도 그렇다고 망하지도 않는 상황이지만, 근처의 노동자(블루컬러)층에게도 인기가 있는 듯 한다.

トリさん 토리상

大山昇太の部屋にいる鳥。下宿館の住人だった浅野さんから譲り受けた。海外の船乗りから譲り受けたらしくよくしゃべるが、かなりがらが悪い奇声を発する。松本零士の漫画によく出てくる特徴的な姿をした鳥である。よく、おいどんが「食うど」と脅すが、食べるとしたらとてもまずそうな鳥である。サルマタケとインキンの薬が好物と云う悪食で、しばしば大山昇太と食べ物の奪い合いをしている。この他にも大山昇太はしばしば「非常食」と称して野良猫を飼うなどしていたが、交通事故で死なせるなどしており、作品を通して飼われ続けたのはこのトリさんだけである。

“오오야마 노봇타”의 방에 있는 새. 하숙관의 하숙인이었던 “아사노”상에게서 물려받았다. 해외의 선원으로부터 물려 받은 것으로 곧잘 말을 하지만 듣기 거북한 괴성을 낸다. “마쓰모토 레이지” 만화에는 자주 등장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한 새이다. 언제나 오이동이 <잡아 먹겠다>라고 위협하지만 잡아 먹어도 맛이 없을 듯한 새이기도 하다. 사루마타케와 백선약을 좋아하는 별난 식성으로 종종 “오오야마 노봇타”와 먹을 것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도 “오오야마 노봇타”가 <비상식량>이라 부르는 도둑고양이를 키우기도 했지만 교통사고로 죽어 버린다. 전 에피소드에 걸쳐 기르는 동물은 “토리상” 뿐이다.

下宿館の住人たち 하숙관의 하숙인들

数々の大学生（東京大学など。 實際に文京区・本郷に住んでいた、松本零士の漫画には、東京大学工学部航空（宇宙）学科を卒業したと見られる、（陸・海軍の、）技師や学徒兵が、数多く登場する。）や大学受験浪人生の女性・男性が入れ替わりで住んでいく。中には世相を反映してか、親の脛を齧る経済的に潤っている浪人生までいる。このほかにも博徒（ヤ一さん）や無業者等といった生活に困窮している人たちもいるが、いつの間にか引っ越したりしていて、同下宿では大家のバーサンを除けば大山昇太が一番の古株のようだ。

각종 대학생(도쿄대학 등. 실제로 분쿄구 혼고에 살고 있던 “마쓰모토 레이지”의 만화에는 도쿄대학 공학부 항공(우주)학과를 졸업했다고 보여지는 (육, 해군의)기사와 학도병이 자주 등장한다.)와 대학 재수생의 여성, 남성이 들어와 살고 있다. 개중에는 세태를 반영한 듯 부모의 도움으로 경제적으로 편안한 백수인생도 있다. 그 외에도 노름꾼(야-상)과 실업자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사이엔가 이사를 가버리기도 한다. 하숙에는 주인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오오야마 노봇타”가 가장 오래되었다.

출처 「일본어판 위키피디아 무료백과사전(<http://ja.wikipedia.org>)」

번역 akane@butterflydigital.org

<저작권에 대해 한 말씀>

1. 원문의 저작권은 「일본어판 위키피디아 무료백과사전」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2. 2차 저작물인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은 akane@butterflydigital.org에 있습니다.
3. 본 문서는 상업용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편집, 가공, 복사 등의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 문서는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나 다른 곳에 옮기실 때에는 출처를 기재 하시고 어디에서 얻었는지 알지 못 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옮겨 왔다라고 명기 해 주셨으면 합니다.